

0-15 완전 정자 무형성증에 의한 비폐쇄성 무정자증 한국남성 불임환자에서 고환조직내 정자추출술은 유용한 것인가?

김종현¹ · 최성규¹ · 윤현수² · 노성일³

¹미즈메디병원 비뇨기과, ²불임연구실, ³산부인과

Background & Objectives: 다중적 고환조직 채취를 통한 정자추출술 (multiple TESE)은 비폐쇄성 무정자증 환자에서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정자 무형성증 환자에서도 정자추출의 성공률이 30%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국내 불임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으며 특히 정자 무형성증 환자에서 multiple TESE가 얼마만큼 유용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전 정자 무형성증에 의한 비폐쇄성 무정자증 한국남성 불임환자에서 고환조직내 정자추출술이 과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Method: 1996년 2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진단받고 multiple TESE를 받았던 245명의 환자들 중 조직검사서 정자형성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은 151명의 완전 정자 무형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78명의 환자는 무작위로 여러 군데의 고환조직을 떼어내는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73명의 환자는 수술현미경을 이용하여 정자형성 세정관을 선택적으로 떼어내는 미세절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정자추출 성공률이 어떠한지와 어떠한 요인들이 성공에 연관되는지를 알아보았다.

Results: 151명의 환자들 중 17명에서 정자추출에 성공하여 정자추출 성공률은 11%로 나타났다. 여러 군데 고환조직을 무작위로 떼어내는 기존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정자추출 성공률은 7.7%였으며, 미세절개 고환조직 채취술을 시행한 경우는 15%로 나타나 두 방법 간에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술 전에 검사한 고환용적, FSH 농도 및 AZF 불임유전자 검사 결과는 정자추출 성공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Conclusions: 이상의 결과에서 완전 정자 무형성증에 의한 무정자증을 가진 한국남성 불임환자에서 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절개수술을 적용하여 정자 추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전체 정자추출 성공률은 서구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 인종적 차이, 고환용적의 차이와 함께 수술 전 조직검사서 판독 기준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겠다.

0-16 IVF-ET Program에서 OHSS 위험이 고조된 환자가 발생할 경우 포배기 배아의 Cryo-Thawing Program으로 전환

이소영 · 김형준 · 윤혜진 · 윤산현 · 이원돈 · 임진호

마리아병원

Background & Objectives: IVF-ET Program에서 OHSS를 지닌 환자들에게 배아이식을 강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될 수도 있다. IVF-ET Program에서 OHSS 위험이 고조된 환자가 발생하였을